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2016. 10. 19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신강민 과장 / 사무관 박완섭 (Tel. 044-200-2348)
* 엠바고 : 10.19(수) 14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일회성 훈련이 아닌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지진대피 훈련되어야

- 황교안 국무총리,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 참관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9일(수) 오후 2시, 정부서울청사 잔디밭에서 열린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참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부터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, 대피훈련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.
- 황 총리는 지난 9월 12일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,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단위의 지진대피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,
 - 그동안 정부는 내진기준 강화 등 지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, 이번 지진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 - 특히, 지진훈련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,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안전처와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.

- 또한,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유사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,
- 국민여러분들도 불편하시더라도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(붙임)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 개요

□ **훈련 개요**

- (일 시) '16. 10. 19(수) 14:00~14:20(20분간)
- (대상지역) 전국(울산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)
- (훈련내용) **쏠 국민 대피훈련, 지진행동요령 교육**

□ **훈련 진행절차**

지진발생 상황	○ 대규모 강진 발생으로 주요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(진원이나 규모 등은 미포함)
	
지진경보 발령 (14:01) * 사이렌 취명, 라디오방송	【지진대피훈련】 ○ 14:00~14:01 훈련절차 안내(라디오 방송) ○ 14:01~14:04 지진경보 발령(사이렌 취명 3분)과 동시에 책상 및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(3분) ○ 14:04~14:10 실내에서 긴급조치 사항* 등 행동요령 숙달 * 출입구 개방, 전기·가스차단, 위험물/낙하물 회피요령 등 ※ 14:01~14:06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 *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
	
실내인원 대피경보 (14:10) * 라디오방송	○ 14:10~14:20 운동장, 인근 광장·공원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
	
해제경보발령 (14:20) * 라디오방송	【훈련 종료】 ○ 14:20 해제 경보 정상 활동 복귀

* 차량통제는 5분 간 실시